檢 칼날, 다시 정치권 겨누나

'골프장 로비' 수사팀 보강 이번주내 마무리

대한통운·신동아건설 비자금 수사도 확대

지난 봄 '박연차 게이트' 수사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여의도에 또 한 차례 사정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스테이트월셔 회장 공모(43·구속기소)씨의 광범위한 금품살포 사건을 파헤치는 이른바 '골프장 로비' 수사의 무게중심이 빠른 속도로 정치권으로 옮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대한통운이나 신동아건설 비자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의 칼끝도 결국은 정치권을 겨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치권이 지난 봄 정치권을 강타했던 '박연차 게이트'에 이어 다시 한번 '수난의 계절'을 맞게될 지 주목된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공씨가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던 인·허가를 성사시키기 위해 직접 영향력이 있는 지자체 공무원을 상대로 한 로비 수사를 이르면 이번주에 마무리짓고 다음 달 초부터 여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씨에게 돈을 받은 안성시의회 전 의장 김모씨와 행정안전부 국장 한모씨 등 2명을 이미 구속했다.

검찰은 공씨가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던 2004년~2006년 사이에 금품로비를 집중적으로 펼쳤던 당시 안성시청과 환경부 등의 공무원 1~2명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끝으로 공무원 수사를 가급적 이번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주부터 공씨가 정치활동을 하면서 접촉이 잦았던 여당 K의원과 H의원, 또다른 K의원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입문의 포부를 갖고 있던 공씨는 현재 거명되는 여권 정치인들과 연결되기 위해 오랫동안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지난해 초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정치권과 공식적인 인연을 맺었다.

따라서 공씨가 정치권에 불법적인 금품을 제공했다면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얻으려고 했다기보다 정치 입문의 발판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스테이트월셔와 별도로 신동아건설을 인수한 일해토건의 비자금과 대한통운 전임 경영진의 비자금 사건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붙이고 있다.

일해토건의 신동아건설 인수는 김대중(DJ) 정부 시절에 이뤄졌고, 대한통운은 법정관리를 받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 비자금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사는 옛 여권 실세들에게 집중될 개연성을 충분히 안고 있다는 지적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朴지사 사과 받고 내년 예산안 상정

전남도의회 파행 일단락

전남도의회가 23일 본회의를 열고 전남도 내년 예산안을 상정했다.

사전 예산협의 미비를 이유로 예산안 상정을 거부한 지 1주일 만에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준비소홀에 대해 사과하면서 예산안 심의 파행이 해소됐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오후 제245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F1 국제자동차 경주장 건설사업비 880억 원 등 총 5조2천46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집행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여러 가지 사소한 잘못이 있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번 일로 예산심의가 소홀해서는 안 되겠고, 집행부도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끼는 자세로 집행하겠다"면서 "의회에서도 더욱 성실하고 깊이 있게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지사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서민생활 안정, 미래산업 육성, 친환경 생명산업 확대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증진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본회의에 앞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도지사 공개사과 등 도의회의 요구안을 전남도가 받아들임에 따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박흥수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은 "도지사 사과와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예산담당관에 대해 집행부의 인사조치 방침이 전달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의회가 일부 절차상의 미흡을 빌미로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는 '몽니'를 부렸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16일 도의회 박인환 의장은 집행부가 의회에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사전협의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을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아 지금까지 예산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남해안권 종합개발' 시동 걸렸다

전남도, 국비 확보·민자유치 등 총력

전남도가 '남해안권 발전 종합개발'사업 성공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23일 박준영 도지사 주재로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각 실·국별 세부추진 계획과 향후 추진 일정 등을 협의했다.

'남해안권 발전 종합개발'은 2천500여 개의 섬과 청정 갯벌, 리아스식 해안이 있는 남해안을 동북아 복합경제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부산·경남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남해안 발전 프로젝트다. 현재 개발계획(안)은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돼 기획재정부 등 중앙 관계부처가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이달 말 협의가 완료된 뒤 다음달 중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개발계획(안) 중 전남의 역점사업은 갤럭시 아일랜드 조성사업과 팽목항 마린시티 조성사업, 광양만권 배후단지 조성 등 5개 전략 26개 단위사업 71개 사업에 달한다.

이 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은 27조612억 원으로, 이중 국비 12조7천115억 원, 지방비 6조4천936억 원, 민자 7조8천561억 원 등이다.

박 지사는 이날 보고회에서 "계획(안)이 정부의 심의·결정을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중앙 관련 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반영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면서 "종합계획 승인 후에도 개발계획 수립 및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과 민간 투자유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빛고을 홍보대사 체계적 관리키로

市 '운영 조례' 입법예고

광주시가 각 실·국에서 무분별하게 운영하고 있는 홍보대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23일 입법예고했다.

그 동안 각종 행사나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추진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지역 출신이나 연관이 있는 유명인, 외국인 등을 홍보대사로 선정해왔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몇 명인지, 어떠한 홍보활동을 벌였는지는 확인된 바 없으며, 대부분 단순한 '사진 촬영'에만 그쳤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시는 이에 따라 '광주시 빛고을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전문가 20명 이내를 홍보대사로 임명해 도시마케팅본부에서 총괄 관리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조례의 제정안에 대해 다음달 18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中 최악 광산 폭발사고 2일(현지시간) 중국 헤이룽장성 허강시 신싱광산 폭발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메몰자들을 구하기 위해 갱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 21일 발생한 폭발사고는 지난 2년간 중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광산사고로 꼽히며 지금까지 100여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보즈워스, 김정일 면담 가능성

내달 평양 체류 일정 하루 늘려 2박3일 될 듯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평양 체류 일정이 당초 알려진 1박2일보다 길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소식통은 23일 "보즈워스 대표가 8일 평양에 들어가 10일까지 머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 일정은 8일부터 9일까지(1박2일)가 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처럼 체류 일정이 길어짐에 따라 북미 대화의 의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미 양측이 뉴욕 채널을 통해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평양 체류 일정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의 회동횟수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 가능성 등이 주목된다.

보즈워스 대표는 평양 방문에 앞서 서울에 들를 예정이며 방북을 마친 이후에도 곧바로 서울로 내려와 방북 결과를 정부 당국에 '디브리핑(debriefing)'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9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보즈워스 대표가 다음달 8일 방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후 미 국무부 안팎에서는 1박2일 방북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조영택 "홍보·행사성 예산 전액 삭감해야"

○…민주당 조영택 의원(광주 서구갑)은 23일 "내년 예산에 70~80년대 개발독재 시기에나 어울릴 법한 국민윤리의식 계도 캠페인 사업이 대폭 편성됐다"며 "이를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심의에서 "국가브랜드위원회의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캠페인 10억원, 문광부의 범국민 환대 서비스 22억원, 글로벌 관광 에티켓 지수 개발·활용 1억5천만원 등 총 42억2천만원이 계도성 캠페인 예산이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내년 정부의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30조9천억원 달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홍보·행사성 국민계도 관제 사업 예산은 불필요하다"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물의' 조남일 서구의원 사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물의를 빚은 광주 서구의회 조남일 의원이 23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조 의원은 이날 '개인 사정으로 인해 서구의회 의원직을 사직코자 한다'며 오향섭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조 의원은 앞서 지난 7월20일 오후 11시45분께 서구 화정동 한 교차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9%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다 상대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따라 서구의회는 지금까지 전체 의원 13명 가운데 5명이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1명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